

창조연대 논쟁 I

Creation Date Controversy 1
-A Biblical Study

성경적 고찰

양승훈

- I. 성경에 나타난 욕
- II. 창조주간의 욕
- III. 성경의 계보
- IV. 그러므로 성경은

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biblical aspects of creation date controversy. In particular, we focus to discuss the semantic controversy about YOM and tentatively conclude that the YOM in Genesis 1 is used to show both a solar day and an indefinite period and the calculation of creation date based on the biblical genealogy is invalid.

I. 성경에 나타난 욥

성경은 천지창조가 언제 일어났다고 말하는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욥’(Yom)이다. 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연대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욥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수백여 회 사용된 욥의 뜻은 ‘한 날의 낮’을 가리키는 것에서부터 긴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인 몇 가지 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아래에서 창세기 1장의 욥이 24시간 태양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주로 로스(H. Ross)의 「Creation and Time」 제5장에서 인용한 것이다.²⁾

(1)태양일, 즉 오늘날의 하루와 같은 24시간 하루의 曆日을 말한다. 용례로서는 “칠월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창 8:4),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레 23:27; 25:9) 등을 들 수 있다.

(2)인생의 한 때나 한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군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욥 14:6) 등이다.

1) 성경관주에서 창조주간의 날을 논의한 기록의 예로는 C. I. Scofield, editor, *The Scofield Reference Bible*(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09), p. 4. 난하 각주를 보라.

2) Hugh Ross, *Creation and Time: A Biblical and Scientific Perspective on the Creation-Date Controversy*(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1994), Ch. 5.

(3)사건의 한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렘 50:27),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속 2:11),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속 14:6) 등이다.

(4)부정기적인 영구한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 등이다.

(5) 하나님의 날의 길이를 말한다. 창세기의 기자 모세가 쓴 시편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like a day that has just gone by) 밤의 한 경점(네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시 90:4).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표현은 신약에도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

이 외에도 욥이 태양일이 아닌 의미로 사용된 예는 매우 많다. 몇몇 예를 들면 “세월이 지난 후에 ...”(창 4:3)에서는 날이 아닌 시간의 경과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맥추 때(wheat harvest time)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창 30:14),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harvest time)에 얼음 냉수 같아서 ...”(잠 25:13),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 또 너희가 여러 날(a long season)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수 24:7), “그 날(a future era)에 여호와와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사 4:2) 등에서는 욥이 정해진 어떤 때나 기간을 나타낸다.

물론 전체적인 사용 횟수를 따진다면 욥이란 단어는 분명히 태양일 하루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또한 평범한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는 데도 많이 사용되었다. 흠정역에서는 65회를 ‘시간’으로 번역했고 1200여회를 ‘날’로 번역했다. 또한 그 복수형인 ‘야밋’(Yamim)은 거의 700여회를 ‘날들’로 번역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경에서의 일반적 용례로 보면 욥은 태양일 하루와 더불어 ‘시대’를 비롯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창조주간의 욕

성경에서의 일반적인 용례와 더불어 창조주간의 욕은 어떤가? 우선 욕을 태양일 하루로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본 후 태양일 하루로 보지 않는 이들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

먼저, 창조주간의 욕을 태양일로 주장하는 이들은 성경기자가 ‘긴 기간’이란 의미를 전달코자 할 때는 언제나 ‘시대’ 또는 ‘긴 기간’을 의미하는 ‘올람’(Olam)을 사용하거나, 욕에다 ‘긴’이란 의미의 ‘람’(rab)을 붙여서 ‘긴 기간’을 뜻하는 ‘욕람’(Yom rab)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 기록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긴 시간이나 시대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성경 기록 기간에는 ‘영원한’(forever), ‘영속적인’(perpetual), ‘지속적인’(lasting), ‘항상’(always), ‘옛날의’(of olden times), ‘오래 전 과거나 오랜 후의 미래, 혹은 둘 다’(the remote past, future, or both)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³⁾

둘째, 창조주간의 욕이 태양일 하루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창세기 1장의 욕이 서수로 수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첫째 날’, ‘둘째 날’ 등과 같이 서수로 수식되는 욕의 경우에는 욕이 반드시 24시간 하루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약에서 ‘날’이라는 말에 한정적인 기수나 서수가 붙을 때에는(이런 경우가 약 200여회 이상 된다) 항상 글자 그대로 태양일 하루라는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수로 수식되는 경우에도 욕이 태양일로 사용되지 않은 예가 성경에 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 일에(on the third day)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호 6:2) 등이다.

셋째, 창조주간의 욕을 태양일 하루로 주장하는 이들은 창조주간의 각 날들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등과 같이 시간적 테두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매우 조심스럽게 ‘긴 기간’이라는 개념을 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히브리어로 100회 이상 나오는 ‘저녁’(ereb)과 ‘아침’(boqer)이라는 용어도 글자 그대로 하루의 끝과 시작을 나타내는 의미 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

3) Harris, Archer, and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I, pp. 672-673; Samuel P. Tregelles, *Gesenius' Hebrew-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9), pp. 612-613.

한다. 그러나 저녁을 의미하는 에레브(ereb)는 ‘일몰’(sunset), ‘저녁’(night), ‘하루의 마침’(ending of the day)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아침을 의미하는 보케르(boker)는 ‘일출’(sunrise), ‘광명의 도래’(coming of light), ‘하루의 시작’(beginning of day), ‘새벽’(dawning)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때로는 비유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⁴⁾ 이러한 용례로 볼 때 창세기 1장에서의 저녁과 아침은 음을 태양일 하루로 해석하기 위한 요소라기보다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요소와 마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창조주간의 음을 태양일 하루로 보지 않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먼저, 음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간의 사역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는 것이나(창 1:6-7), 셋째 날 물로 덮혀있던 지구에서 육지를 드러나게 하는(창 1:9-10) 엄청난 조산운동이나 조륙운동이 과연 하루 동안에 일어났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어떤 일도 순식간에 능히 하실 수 있지만 맨틀(Mantle)의 대류나 지각의 자연스런 변동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24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므로 무슨 일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실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전지전능하지 않은 아담은 어떻게(아무리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동물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셨다고 해도) 하루 동안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겠으며(창 2:19-20), 어느 사이에 하와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갈빗대를 빼내는 대수술(?)을 받았겠으며(창 2:21-22), 언제 결혼까지 했겠으며(창 2:23-24), 뱀의 미혹으로 타락하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겠느냐(창 3)는 것이다.

혹자는 하와의 창조가 창조주간 이후라고 할지 모르나 창 1:27-29의 기록으로 미루어 하와도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창 1:27), 이들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며(창

4)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Oxford, UK: Clarendon Press, 1968), pp. 133-134; Harris, Archer and Wal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I, p. 125.

1:28), 이들에게 모든 채소와 나무를 식물로 주셨다(창 1:29).

또한 혹자는 아담의 능력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초인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수퍼맨이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인간의 타락을 인간의 능력 감소와 관련지은 적이 없다. 물론 죄로 인해 죽음이 왔다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추론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을 두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등 아담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예수님 자신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때가 될 때까지 가업에 성실하게 종사하셨다. 목공일이나 그 외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인적인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한 후였다. 이러한 사실은 설사 아담이 오늘 우리들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에덴동산을 돌보는 등 일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인적인 속도로 일하지 않았을 것을 시사한다.

여섯째 날과 더불어 일곱째 날도 창조주간의 하루를 태양일 하루로 보는 데 문제를 제기한다.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의 길이가 태양일 하루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창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X째 날이니라”(영어 흠정역에서의 표현을 보면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the Xth day*)라는 표현이 패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그런 표현이 없다. 성경의 병렬적 표현법을 감안한다면 창조 사역 후 아직까지 안식의 날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히브리서 4장의 예를 살펴보자.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 4:4-11). 여기서는 제칠일, 즉 안식일은 태양일 하루가 아니라 창조 여섯째 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시편 95편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내가 사십 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

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시 95:10-11). 여기서 안식이란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과는 무관하게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멀리는 신자들이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칠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약적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삼십팔 년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힐문하였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즉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기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대답을 하셨다. 이처럼 안식일, 즉 창조의 제칠일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창조주간의 나머지 옛새도 반드시 태양일 하루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창 2:4의 말씀도 창조주간의 하루를 단순한 태양일로 본다면 맞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하여 “날”이라는 말이 잘 드러나 있지 않으나 영어에서는 좀더 분명하게 ‘day’(음)가 드러난다.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of their making”. 여기서 day라는 말은 옛새 동안의 모든 창조의 날을 지칭하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것은 ‘음’을 24시간 태양일 하루로 보는 것이 아니다.⁵⁾

III. 성경의 계보

음의 해석과 더불어 창조연대 계산에 사용되는 성경의 기록은 계보이다. 일부 사람들은 창조주간의 음을 태양일 하루로 보고, 창 1:1-2을 창조 첫날의 사역에 포함시키며, 성경의 계보에 아무런 생략이 없다는 가정 하에 창조의 연대를 계산한다. 그러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그린(William Henry

5) Ross, *Creation and Time*, p. 52.

Green, 1825-1900)은 “최초의 연대기”(Primeval Chronology)라는 글에서 창세기 5-11장에 있는 연대를 근거로 천지창조나 아담의 창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들의 정확한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역대상 6장이나 에스라 7장에 있는 연대를 창세기의 계보들과 비교하면서 성경의 계보에는 생략과 간격이 다반사임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5-11장에 있는 계보에도 얼마든지 기록되지 않은 계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성경의 계보를 근거로 창조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⁶⁾

IV. 그러므로 성경은 ...

결론적으로, 여러 용례를 통해 볼 때 구약에서 보여 주는 욥의 길이는 태양일 하루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젊 은 지구 연대를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은 욥이 태양일 하루 이외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앞뒤의 문맥으로부터 그것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욥이 서수의 수식을 받거나 저녁과 아침 등으로 하루의 시간적 경계가 있을 때는 태양일 하루 이외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엄연히 서수로 수식되면서도 태양일이 아닌 욥이 있으며, 특히 창세기 1장에서의 저녁과 아침은 태양일의 시작과 마침 이상의, 좀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성경을 근거로 오랜 지구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로스는 성경이 “지구가 오래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증거”(explicit statements of earth's antiquity)한다고 주장한다.⁷⁾ 예를 들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었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합 3:6), 혹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벧후 3:5) 등이다. 그러나 편견없이 본다면 이 구절들로부터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현대 지질학의 결과를 지지할만한 결론은 도출할 수가 없다. ‘영원한’, ‘무궁한’, ‘예로부터’,

6) W. H. Green, “Primeval Chronology,” in *Bibliotheca Sacra* 47(1890), pp. 285-303.

7) Ross, *Creation and Time*, p. 52.

‘옛적부터’ 따위의 표현들은 수천 년된 지구를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수 십억 년된 지구를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주간의 날에 대한 성경의 字句的 해석만으로는 창조주간의 하루가 태양일의 하루인지, 아니면 불특정한 어떤 기간인지, 하나님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성경은 창조주간의 하루가 태양일 하루인지, 지질학적 시대인지에 관한 어떤 확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비는 창조의 날이 아침과 저녁, 즉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끝나는 것에 의해 구분되어졌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이 저녁과 아침의 사이가 24시간인지, 혹은 2억 4천만 년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음은 어떤 기간, 혹은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일 하루라고 해석하는 것도 단지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음을 태양일이나 시대로 해석함으로 생기는 문제보다, 어느 한 해석이 아니면 안된다는 경직된 자세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 양승훈 ■

1955년 경북 점촌에서 태어나 경북대 물리교육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반도체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현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실행위원, 기독교교육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저서로 「기독교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낮은자의 평강」, 「환경문제」,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외 다수.